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 (그리운 이름 고향 - 살암시산)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매너리)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우리 전통의 멋과 흥 55 안녕 우리말	00 우리동네 예능 스페셜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00 KBC 생활뉴스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45 닥터365 55 남도의보물 100선
2	00 제3회 전국 남녀 소프트트랙 선수권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 스포츠 제69회 전국 종합탁구 선수권대회	20 세상발전 유레카
3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55 토크생활제2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건강 클리닉(재)
4	30 쾌도남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TV 책을 보다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00 3시 뉴스 브리핑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7	10 부르면 갑니다 마슴아들 (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8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1 55 비타민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50 채널A 스포츠	00 다큐 1 (교육혁신 프로젝트 학교의 진화 2부작) 55 스포터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드라마 스페셜 (리베라 아들의 전쟁)
11	00 아내가 뿔났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킬크로드)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가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50 빠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포랜드-한자왕국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6:10 한국 음악 기행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이터스(재)	11:10 다큐 오늘	15:45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광구대장 풍봉이(재)	20:40 다큐오늘
08:00 당동명 유치원 1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배우 축복의 땅을 가다)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목표는 항구다)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0 두다다콩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중 슈퍼왕스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08:45 방구대장 풍봉이	14:30 캐니벌	18:25 아유명명 권여워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일제개편>	12:10 5분과함 - 지구과학 1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2:15 뉴 탑스런 <법과 정치>(재)
01:40 " <화환과 통계>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듣기>
02:30 " <기하와 벡터>	14:00 수능특강 <수학(나)형>(재)
03:20 " <수학 II>	14:50 수능 길잡이 <국어-문학>(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15:40 " <영어 독해-유형>(재)
	16:30 " <기하와 벡터>(재)
05:00 뉴탑스런 <화학>	17:20 2017 수능개념 <미적분>
06:00 " <지구과학>	18:10 " <미적분 II>
06:50 " <세계지리>	19:10 뉴탑스런 <세계지리>(재)
07:40 " <법과 정치>	20:00 EBS스타강사 특강
08:30 수능영어 <수학(나)형>	20:50 2017 수능개념
09:20 수능 길잡이 <국어-문학>	<김철수의 출제 원리로 완성하는 비법>
10:10 " <영어 독해-유형>	21:40 " <유연주의 수능개념 TALK>
11:00 " <기하와 벡터>	22:30 박범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물류 관리자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정왕 <과학 3-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4-2>
08:30 검정고시 교육강좌	16:20 " <과학 5-2>
09:00 출제문 수확 EBS MATH	16:50 " <과학 6-2>
09:10 TV중학 <국어(1)>(2)	17:20 만정왕 평가문제풀이
09:50 " <영어>	<전과목 6-2>
10:30 " <도덕 2>	18:00 TV중학 <수학3(하)>
11:10 " <국어(3)>(4)	18:40 " <영어 3>
11:50 " <영어 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특강
13:00 대일치 사술형 수학	20:50 우리 아이가 학교가요
13:10 2015 중학수학 <사회 1>	21:00 중학생활 그것이 궁금하다
13:50 " <사회 2>	21:40 EBS UCC 공모 나쁘다
14:30 " <역사 1>	22:00 등급신공 <역사2>
15:10 오 마이 미래 2035	22:40 " <과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음 11월 7일 丁卯)

子	48년생 궁리하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60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72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훨씬 나은 것이다. 84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3, 35	午	42년생 신호가 오거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야만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54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음이 옳다. 66년생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78년생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1
丑	49년생 소강상태를 지나 활성화되리라. 61년생 미련 없이 비운 다면 머지않아 채워질 것이다. 73년생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8, 23	未	43년생 균형을 잃었거나 획일적이었던 삶에서 살며 볼 일이다. 55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67년생 핵심 가치를 간과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79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선택하자. 행운의 숫자 : 92, 84
寅	38년생 맞추어 나가야 할 때다. 50년생 취하면 입자가 될 것이다. 62년생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74년생 너무 민감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겠다. 86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2, 04	申	44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56년생 모를지기 승리의 여신은 노력하는 이를 사랑 하느니라. 68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80년생 흥겨운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6, 77
卯	39년생 취약하거나 저조한 면모다. 51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63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 75년생 서두르면 실수하게 된다. 87년생 꾸며져 있는 것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83, 52	酉	45년생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관세에 이른다. 57년생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빠아픈 갈등을 하리라. 69년생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왔던 일이 가다가 잡히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81년생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2, 11
辰	40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52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64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나 변수도 작용한다. 76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뤄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91	戌	46년생 구상은 좋으나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58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70년생 진중하게 장고한 다음에 대담하게 넘어가는 것이 백번 낫다. 82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어울린다. 행운의 숫자 : 12, 88
巳	41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53년생 오랫동안 지연되는 양태이다. 65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77년생 직접 만나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54	亥	47년생 추진하던 일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당도 있음을 간파하지 마라. 59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지다. 71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83년생 조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내 목표는 대중문화예술학교 설립”

‘데뷔 반세기’ 하춘화 내달 자선 콘서트

“후배들이 ‘어떤 좋은 선배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갔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순의 나이에도 맑은 눈빛에 고운 피부, 생글생글한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던 가수 하춘화(사진)가 돌연 눈물을 보였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내년 1월 15~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는 자선 콘서트 ‘하춘화 노래 55 나눔·사랑 리사이틀’을 소개하고자 기자들과 만난 하춘화는 앞으로 한국 가요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울먹였다.

“제가 음악을 할 때는 대중음악을 많이들 전시켰어요. 아마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춘화는 이어 “해외에는 줄리아드 음대 등 체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학교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이 아쉽다”며 “우리 후배들이 어디 가서나 대접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 예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고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예전에는 K팝이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면서 “후배들 음악을 세계인이 사랑한다는 것, 우리 후배들이 그런 환경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부럽다”고 말했다.

여섯 살에 가수로 데뷔해 내년이면 데뷔 55주년을 맞는 하춘화는 매년 수차례 자선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그가 유명해지니까 아버지께서 ‘너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이웃에게 되돌리는 사람이 돼서 따가운 인식을 바꾸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제가 데뷔한 때는 대중음악 예술인을 ‘광대’, ‘판따라’로 부르던 시대였어요. 저를 가수로 키워주신 유일한 분이 아버지였죠. 제가 유명해지니까 아버지께서 ‘너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이웃에게 되돌리는 사람이 돼서 따가운 인식을 바꾸고 동료나 후배들이 따라 할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부모님 뜻이니 그저 따랐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일, 사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기부한 규모는 긴 세월만큼 셈하기도 어렵다. 하춘화는 “100평짜리 집 한 채가 300만~400만 원 할 때부터 기부했으니까, 지금 다시 계산하면 가치가 몇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춘화는 이번 공연에서 ‘날 버린 남자’, ‘무죄’ 등 자신의 대



표곡은 물론 신세대 가요와 팝송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약 50명, 무용단 50명, 합창단 30명 등 한 무대에 100여 명이 오가는 공연에는 방송인 송해와 이상벽, 가수 태진아와 김홍국·박상철 등도 참여해 자신의 뜻을 함께한다.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몸무게가 3~5kg씩 빠진다”는 하춘화는 무대에서 오페라를 선보이려고 성악 교습을 받았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탭댄스를 재현하고자 탭댄스를 3년이나 배웠다. 그는 “대중의 눈높이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진다. 매년 더 좋은 공연, 관객이 ‘이야!’ 할 정도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벌써 반세기 이상을 노래했다. 한국 가요사가 80년이라고 하면 내 이상을 현장에 있기도 했다”며 “동반 국민에게 위로로 준 불후의 명곡들도 선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연 수익금은 서울 시내 25개 구(區)마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100가구를 골라 총 2천500가구를 돕는 데 쓰인다.

남궁연 “방치된 신해철법 도입 설득할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故 신해철 가족 등 환자단체 법안심의 촉구

“신해철법’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의료 사고 논란이 인 고(故)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 고(故) 전 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마련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히고 힘을 모아 설득해나간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지인인 드러머 남궁연은 “저희는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라며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막힐 수 있는 일이다.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오세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전예강 양의 가족은 이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윤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등 삼중고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씨아이, 영화 ‘도성풍운3’ 특별 출연

주윤발·유덕화 등 톱스타 대거 등장… 내년 2월 중서 개봉

가수 씨아이(본명 박재성·38)가 저우론파(周潤發·주윤발)와 류더화(劉德華·劉德華) 등 중국 톱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도성풍운(賭城風雲)’에 특별 출연한다.

도성풍운은 제작진 측은 지난 14일 유튜브에 씨아이 등등장하는 영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한 일북에 선글라스를 쓴 씨아이는 카지노에서 저우론파를 만나 “가오징어 선생,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악수를 건네는 듯하다. 장상근에게 손을 빼고는

“지금 시작합시다”라며 게임장을 향한다.

씨아이는 영화 제작진 측 제의를 받아 이 영화에 성공한 사업가 역할로 카메오 출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연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 액션 영화 ‘도성풍운3’에는 류자링(劉嘉玲), 장쑤어우(張學友) 등 중국 톱스타들이 여럿 출연하며 내년 2월 중국서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